

## 래시퍼드·웰백 골, 잉글랜드 코스타리카에 2:0 승리

등록 2018.06.08 10:57:26



잉글랜드 대 코스타리카 평가전

【서울=뉴스시스】 권성근 기자 = 잉글랜드가 안방에서 코스타리카를 제압하며 2018 러시아 월드컵을 향한 순항을 이어갔다. 8일 오전(한국시간) 웨스트요크셔 리즈 엘런드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A매치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2018 러시아 월드컵 전망을 밝혔다.

잉글랜드는 전반 12분만에 터진 마커스 래시퍼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래시퍼드는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 밖에서 기습적인 오른발 중거리 슈트로 코스타리카 골망을 갈랐다. 코스타리카 케일러 나바스(레알 마드리드) 골키퍼가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탄성을 자아낼 만한 날카로운 슈트이었다.

후반전에도 잉글랜드는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압박했고 코스타리카는 선수비 후 역습 전략으로 맞섰다. 추가골은 후반 30분에 나왔다. 델레 알리(토트넘)가 왼쪽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날렸고 대니 웰백(아스널)이 헤딩으로 마무리했다.

잉글랜드는 18일 튀니지와 G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ks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